

# 정례브리핑

2021.11.19.(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보도 매체를 통해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어제 개막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3대혁명 선구자대회는 1986년 제1차 대회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개최되었으며, 이번에는 4차 대회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과거 네 차례의 대회에서도 최고지도자가 대회에 참석한 경우는 없었으며, 서한 등을 통해 참가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제1차 대회가 6일 동안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차에서 제4차까지 모두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5차 대회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동향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회가 갖는 의미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한국유라시아학회,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바이든정부 시기,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국제 관계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며, 3개의 세션이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게 되며, 이 세션에서는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들이 바이든정부 시기 한국의 새로운 4강 외교전략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평화경제, 가상투자, 청년 데모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창업과 투자,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발표하고 금융, 마케팅, 남북경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가상투자 경진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개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내일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통일부 차관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부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은 아직도 답신이 없는지요.

**<답변>**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이미 영상회담 구축체계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중 국경봉쇄 완화 조짐과 관련해 정부가 새롭게 파악한 징후가 있는지요.

**<답변>**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경향이 최근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다만, 정확한 북중 간 물류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중 물류 재개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동향들을 유관 부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 질문이 현장에  
서 있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